

보도해명자료 (19. 6. 1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전기요금 할인 소요재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은
현재 확정된 바 없음

(머니투데이 인터넷판 6.1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전기요금 할인 소요재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은 현재 확정된 바 없음
- ◇ 6월 19일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<월1만원 전기료 할인...한전 손실액 국고로 메운다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손실을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보전할 예정이며, 연간 지원액은 약 1,000억원으로 전망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전기요금 할인 소요재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은 현재 확정된 바 없음

※ 문의: 전력시장과 박찬기 과장/하원석 사무관 (044-203-5173)